인문연구 제8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8. Vol. 83, No. 1, pp.49~74
http://dx.doi.org/10.21211/JHUM.83.2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海に生くる人々)」과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게잡이 공선(蟹工船)」의 비교연구

황봉모*

〈차 례〉

1. 들어가며
2.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의「바다에 사는 사람들(海に生くる人々)」
3.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게잡이 공선(蟹工船)」
4.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고바야시 다키지 「게잡이 공선」의 비교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을 비교 연구한 것이다.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은 어업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

* 경북대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강사.

나의 공통점을 가진 소설이다. 그리고 「게잡이 공선」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두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은 배에 대한 실권의 문제, 난파선에 대한 대응, 어업노동자의 신분과 노동기간, 경찰과 제국군대의 차이, 개인 파업과 집단 파업, 파업과정의 유무, 그리고 파업의 성패 등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무엇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파업이 실패하지만, 「게잡이 공선」의 파업은 성공한다. 또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파업에 이르는 과정이 없고, 「게잡이 공선」은 파업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작품에서 파업의 성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발표는 각각 1926년과 1929년이다. 이렇게 겨우 3년 차이이지만, 두 작품의 간격은 크다. 3년 사이에 일본노동운동의 급격한 발전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게잡이 공선」에서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그 위에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갔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하야마 요시키, 고바야시 다키지, 『바다에 사는 사람들』, 『게잡이 공선』, 파업.

1. 들어가며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海に生くる人々)」(1926년)은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은 이 작품의 등장에 의하여 비로소 그 예술적 수준을 인정받게 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까지 조직을 가

지지 않았던 여러 종류의 해상노동자들의 모습과, 그들이 점차로 계급적인 자각을 가지고 일어나는 광경이 광채로 빛나는 필치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비참하고 어두운 제재가 조금도 음울하게 느껴지지 않고, 아름다운 서정시를 연상시킬 만큼 뛰어난 장면으로 그려진 스케일이 큰 서사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는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리고 그의 「게잡이 공선(蟹工船)」(1929년)은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이 작품에서 감독의 잔혹한 노동 착취에 대한 어업노동자들의 저항을 선명하게 그려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문학적 의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또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의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이 작품에게서 큰 영향을 받은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의 관계를 비교 고찰해보기로 한다.

2.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海に生くる人々)」

하야마 요시키(1894-1945)는 후쿠오카 현(福岡縣)에서 태어났다. 그는 와세다(早稻田)대학 문과에 입학했지만, 선원이 되려고 생각해 등교하지 않고 학비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적된다. 그 뒤 그는 하급선원 견습생이 되어 캘거타 항로의 화물선을 타고, 선원수첩을 받은 뒤에는 요코하마(橫浜)와 무로란(室蘭)항을 왕복하는 석탄선 만지마루(万字丸)를 탄다.

그 후 그는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한다. 1921년 『나고야 신문』의 기자를 하면서 노동운동에 관여하여, 일본공산당의 지도를 받

는 노동조합 활동가 조직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1923년 나고야(名古屋)에서 공산당 관련 사건으로 검거되어 나고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옥중에서 「매춘부(淫賣婦)」 「난파(難破)」(후에 「바다에 사는 사람들」)를 탈고한다.

하야마 요시키가 처음 발표한 소설은 1924년 10월 『문예전선(文芸戰線)』에 게재된 「감옥의 반나절(牢獄の半日)」이다. 이 단편은 거의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1925년 11월 『문예전선』에 「매춘부」가, 그리고 다음 해 1월 「시멘트 통 안의 편지(セメント樽の中の手紙)」가 발표되자, 그는 곧 재능 있는 신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에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간행된 것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이 하야마 요시키가 무로란과 요코하마를 왕래하는 석탄선에 탔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쓴 작품이다. 그러므로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체적인 모델이 있는데, 우선 하다(波田)는 하야마 요시키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후지와라(藤原)는 작가의 나고야에서의 노동운동 시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오구라(小倉), 미카미(三上)라는 하급선원, 요시타케(吉竹)선장과 구로카와(黑川) 일등항해사 등은 모두 하야마가 타고 있던 만지마루의 승무원이 모델이 되어 있다. 또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내용은 그의 1921년 이후의 나고야 노동운동의 체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하야마 요시키의 문학은 사상성, 혁명성이 부족하다고 하여 오랫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이 혁명성에 치우친 나머지 이데올로기주의에 빠져 관념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야마 요시키는 어떠한 작품에서도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또 초기부터 전쟁말기까지 민중에 대한 사랑이 일관되게 그의 문학 기조에 흐

르고 있다. 서민성, 유머, 서정적 성격 등 당시에는 혁명적이 아니라고 간주되어 부정되었지만, 오히려 이러한 곳에 하야마의 문학이 지금도 생생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근거가 되어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1926년 10월에 가이조(改造)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일본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 초기의 기념비적 작품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하야마 요시키의 자작 연보(年譜)에 의하면, 1917년경부터 1923년에 걸쳐 약 6년간 쓰인 작품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발표되었을 때, 당시 많은 작가·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는 "일본문학에서 이때까지 노동자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노동자 생활과 투쟁, 그 여러 가지 성격을 이렇게 큰 스케일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은 하야마의 이 작품 이전에는 없었다. 이 의미에서 하야마의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의 역사에 있어서도 실로 획기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1]라고, 이 작품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는 이 작품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일본 해상(海上)노동자를 취급한 상당히 로맨틱한 장편소설로, 일본의 소위 프롤레타리아문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의 하나이다. 또한 메이지 이후 일본의 근대소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의 하나이다. 그리고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친 세계의 새로운 문학 가운데 중요한 작품의 하나이다.
>
> 이 작품이 단행본으로 간행된 해는 1926년이다. 그 전의 1917년 러

---

1) 구라하라 고레히토(藏原惟人)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海に生くる人々』について)」『구라하라 고레히토 평론집 제3권 』新日本出版社, 1975, p. 279.

> 시아 혁명으로 새로운 문학작품이 이제까지 나온 적이 없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런 작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당시 일본문학이 낳을 수 있는 작품으로서 그들에게 전혀 손색이 없다. 거기에 여러 문제는 있지만 이러한 작품이라고 나는 생각한다.[2)]

나카노 시게하루는 하야마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은 물론, 일본근대문학뿐만이 아니고 세계문학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구라하라 고레히토와 나카노 시게하루가 평가하듯이, 하야마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이전 일본문학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학의 등장이라는 데에 그 문학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게잡이 공선(蟹工船)」

고바야시 다키지(1903-1933)는 아키타 현(秋田縣)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907년 12월 고바야시 일가는 가난을 피하여 홋카이도로 이주하여 온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1921년 백부의 원조로 오타루(小樽)고등상업학교에 입학하여, 1924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홋카이도 척식(北海道拓植)은행 오타루 지점에 취직한다. 1927년경부터 그는 사회과학을 배우면서 사회의 모순을 알게 되고, 그 후 오타루의 노동운동에 직접 참가하며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에도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는 구라하라 고레히토의 영향을 받아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탄압을 그린 「1928년 3월 15일」을 『전기(戰旗)』에 게재

---

2) 나카노 시게하루(中野重治)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언어(『海に生くる人々』の言語)」『나카노 시게하루 전집 제18권(中野重治 全集 第十八卷)』 筑摩書房, 1997, pp. 20-21.

하며 본격적인 프롤레타리아문학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대표작인 「게잡이 공선」을 쓰고, 「부재지주(不在地主)」 「공장세포(工場細胞)」 등을 완성하며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그는 가두 연락 중에 체포되어 그날 특고(特高)의 고문에 의하여 학살되었다. 만 29세 4개월이었다. 사후에 일본문학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의 조형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받는 「당생활자(黨生活者)」가 출판되었다.

「게잡이 공선」은 『전기』의 1929년 5월호와 6월호에, 전편과 후편의 2회로 나누어져 발표되었다. 이 작품이 얼마나 호평이었던가는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데즈카 히데다카(手塚英孝)는 『일본근대문학대사전(日本近代文學大事典)』(제2권, 1976년 11월 발행, 일본근대문학관)에서, 「게잡이 공선」에 대하여 "1929. 9, 11, 1930. 3, 전기사(戰旗社) 간행의 3권 중 처음의 2권은 발매금지가 되었지만, 배포망에 의하여 반 년 간에 35,000부 발행. 그 외 전전(戰前) 일곱 권의 각종 판본은 후기가 됨에 따라 복자가 많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당시 이 작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키지는 1926년 게잡이 공선에서 일어난 사건과 북양어업에 대해서 3~4년에 걸친 면밀한 취재를 통해 「게잡이 공선」을 완성했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은 한 마디로 말하면, 자본가의 잔혹한 노동과 착취에 대한 어업노동자들의 저항을 그린 작품이다. 다키지는 「게잡이 공선」에서 지금까지 굴종밖에 몰랐던 어업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힘에 눈을 떠, 자신들의 손으로 자본가의 착취에 대항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훌륭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어업노동자들의 현실을 인식하여 가는 과정이 객관적이고 자연스런 형태로 그려져 있다.

쓰보이 시게지(壺井繁治)는 「게잡이 공선」을 높게 평가하고, 이 작품이 다키지의 인생 주제와 겹쳐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다키지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자기추구의 문제가 이 작품의 주제추구와 입체적으로 겹치고 있는 곳에 나는 큰 매력과 관심이 있다. 「1928년 3월 15일」이 전위적인 인간, 혹은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여 전위적이 되려고 하는 인물의 등장을 통해 자기검증의 길을 확고히 한 것이 주제라면, 이 「게잡이 공선」은 이름도 없는 최하층의 잡다한 인물들이 이제까지 자신들이 처해 있던 극한적 상황, 거의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 한계를, 쟁의(爭議)를 하나의 기폭점으로 하여 돌파하여 천황제 절대주의 권력과 대결하는 식으로 마지막 주제가 좁혀 있고, 이 주제추구가 동시에 다키지가 이제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주제와 겹쳐 있다.[3)]

쓰보이 시게지의 말대로 다키지는 「게잡이 공선」에 나오는 어업노동자의 불굴의 길을 자신의 길로 하여 걸어갔다. 어업노동자들이 첫 번째 파업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파업을 일으켰듯이, 그는 천황제 경찰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길을 관철해 갔다.

「게잡이 공선」은 고바야시 다키지의 대표작으로서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뿐만이 아니고, 일본근대문학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작품이다.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일본의 프롤레타리아문학을 처음으로 예술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작품이라고 한다면, 「게잡이 공선」의 역사적 의의는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을 사상(思想)의 영역으로까지 넓혀 그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곳에 있다. 이 작품에서는 노동자의 구체적인 행동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묘사되고 있다. 「게잡이 공선」에 의하여 일본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은 그 앙양기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

한편, 하야마 요시키의 작품은 고바야시 다키지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

3) 「회상의 고바야시 다키지」『쓰보이 시게지 전집 별권(壺井繁治全集 別卷)』 青磁社, 1989, p. 48.

1926년 9월 14일 일기에[4], 다키지는 하야마의 『매춘부』는 "어느 의미에서 자신에게 쾅! 하고 왔다."라고 쓰고 있다. 하야마의 작품에서 보이는 "하나의 태도-의식, 이것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자신에게도 '의식'은 있지만, 그것이 그 정도 '정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부르주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식, 생산계급의 소비, 유한계급에 대한 반항의식, 착취된 의식, 이러한 것이 인도주의적인 마음에 뒷받침되어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작품의 청신함'에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라고 다키지는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이것은 하야마의 작품 속에는 사상적·추상적인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인 생활이 있다는 다키지의 발견이었다.

다키지는 하야마 요시키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1929년 1월 15일 하야마 요시키에게 "나는 당신의 작품에서 외국의 어느 작가보다도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후에도 나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선 하야마 요시키 집(新選葉山嘉樹集)』을 추천할 것입니다."[5]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뒤에 다키지는 "나는 하야마의 소설에 처음으로 목덜미를 잡혔다고 말해도 좋다. 그것은 실로 '강인한 팔'이었다. 하야마는 일본문학이 이제까지 결코 가지지 못했던 '늠름한 문학'을 내걸고 등장했다. 그 최초의 작가였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나에게 검을 들이댄 '코란'이었다"라고 회고하면서, 그는 "하야마를 나는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한다.[6] 일본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고바야시 다키지가 하야마 요시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게

---

4)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7권』 신일본출판사, 1993, p. 45.

5) 같은 책, p. 385.

6) 고바야시 다키지 「葉山嘉樹」 『新潮』 新潮社, 1930년 1월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5권』 신일본출판사, 1993, pp. 153-154.)

잡이 공선」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이다.[7]

4.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게잡이 공선」의 비교

하야마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고바야시의 「게잡이 공선」은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작품은 어업노동자를 작품 대상으로 했다는 것과 노동자의 파업, 그리고 두 작품 모두 난파선이 등장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작품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쓴 작품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하야마는 자신의 선원생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썼고, 고바야시 다키지는 당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던 게잡이 공선을 취재하여 「게잡이 공선」을 썼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차이가 많다. 어업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게잡이 공선」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지만, 두 작품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여기에서 두 작품의 차이를 비교해본다.

첫째,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배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장이지만, 「게잡이 공선」에서는 감독(監督)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배의 실권을 가진 권력자는 선장이다. 이 작품에서는 선장이 배의 운항과 선원에 대한 처우 등, 배에 대한 모든 것을 명령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선장이 실권의 상징인 권총을 가지고 있다.

---

7) 히라노 켄(平野謙)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을 빼고서는 「게잡이 공선」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야마 요시키」『히라노 켄 작가논집(平野謙作家論集)』新潮社, 1971, p. 338.)

하지만 「게잡이 공선」에서 배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장이 아니고, 감독이다. 이 작품에서 선장은 단지 배의 얼굴을 담당할 뿐으로 배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감독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는 감독이 권총을 가지고 어업노동자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권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업노동자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즉 그에게 그 만큼의 힘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것은 난파선 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도 「게잡이 공선」에서도 난파선이 등장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무로란 항을 출항한 만주마루는 폭풍우에 침몰한 배를 발견한다. 이 작품에서는 난파선을 발견한 광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 브리지에는 망원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선이 구조신호를 보내며 난파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브리지는 즉각 엔진을 향해 전속력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했다. 구조에 나서려고 하는 것이었다. (중략) 선장은 방금 전에 내린 명령을 번복하여 다시 방향을 원래대로 돌렸다. 배는 채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코스를 거의 반 바퀴나 돈 셈이 되었다. 배는 난파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뱃머리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고 말았다.
>
> 난파선을 구조한다는 것은 이 배도 함께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므로 뱃머리는 더 이상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8]

침몰한 배를 발견한 선장은 난파선을 구조하기 위해 배의 방향을 돌리지만, 곧 자신의 항로로 되돌아온다. 침몰된 배를 구조하려고 하면 자신의 배가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만주마루가 바닷물을 들이켜 배 속의 반을 채우는 바람에 익사 직전이었기"

---

8) 하야마 요시키(葉山嘉樹) 『바다에 사는 사람들(海に生くる人々)』 岩波文庫, 2003, pp. 15-16.

때문이었다. 만주마루는 구조에 나서려고 했지만 자신의 배가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구조를 포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모두 선장이 내린다.

그런데 「게잡이 공선」에서는 다르다.

이 작품에서는 모든 결정을 감독이 내린다. 난파선으로부터 SOS 구조신호가 왔을 때, 선장은 구조를 위해 배를 돌리라고 명령하지만 감독인 아사카와(淺川)에 의해 저지당한다. 「게잡이 공선」에서 난파선의 조난 장면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 폭풍 때문에 다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 선장실에 무선사가 당황하여 뛰어 들어왔다.
> "선장님 큰일입니다. S・O・S입니다!"
> "S・O・S? — 어느 배인가?"
> "지치부마루(秩父丸)입니다. 본선과 나란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 "고물선이야. -그것은!" — 아사카와가 비옷을 입은 채, 구석 쪽 의자에 크게 가랑이를 벌리고 앉아 있었다. 한쪽 구두 끝만을 깔보듯이 달그락 달그락 움직이면서 웃었다. "하긴 어느 배라도 고물선이지만."
>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음 그것은 큰일이군."
> 선장은 조타실에 오르기 위하여 서둘러 비옷도 걸치지 않고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열기 전이었다. 느닷없이 아사카와가 선장의 오른쪽 어깨를 잡았다.[9]

선장은 구조하러 나가려고 하였지만, 감독인 아사카와가 그의 어깨를 잡는다. 그것은 이 배의 출동을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이 배의 선장이 아니고, 감독이었기 때문이다. 배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아사카와는 선장의 구조명령에 대하여, "그런 일에 관계되어

---

9) 「게잡이 공선」『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2권』 신일본출판사, 1993, pp. 276-277.

봐. 일주일이나 망쳐버려! 농담이 아니야. 게다가 지치부마루에는 엄청난 보험이 걸려있어. 고물선이야. 침몰하면 이득이야."라고, 잘라 말해 버린다. 이렇게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배의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선장이지만, 「게잡이 공선」에서 배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독인 아사카와이다.

한편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만주마루가 난파선을 구조하러 가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주마루는 구조하러 나서려고 했지만 자신들의 배가 위험해서 난파선을 지나친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의 경우는 다르다. 여기에서 배는 자신들의 배가 위험해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구조하러 가지 않는다. 구조신호를 무시한다. 난파선의 SOS 구조신호를 받으면 구조하러 가는 것이 규칙인데도 불구하고, 감독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난파선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다.

이렇게 난파선에 대한 대응 태도만 보더라도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게잡이 공선」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 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난파선을 지나치지만, 「게잡이 공선」의 경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난파선을 지나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자신들의 이익이란 어업노동자의 이익이 아니고, 자본가의 이익을 말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게잡이 공선」의 간격을 알 수 있다.

둘째,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하급 선원들은 정규직이지만, 「게잡이 공선」에서 어업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하급 선원들은 모두 정규직 선원이다. 혹은 정규직 선원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정규직에 가까운 신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각자 선원수첩을 가지고 있고, 선원 경력을 쌓으면 고등 선원이 될 자격도 가질 수 있다. 정식으로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견습 선원인 야스이뿐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은 계절노동자로서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그들은 4월부터 8월까지 게잡이 공선에서 일하는 단기 노동자들이다. 불안정한 신분이었다.

또, 두 작품의 어업노동자들은 배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다르다.

무로란에서 요코하마까지의 항로에 걸리는 시간은 3~4일이다. 짧은 구간이다. 그러므로 어업노동자들은 일이 힘들다고 해도 짧은 구간이니만큼 곧 도착할 육지를 기다리며 힘든 노동을 참을 수 있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에서 어업노동자들의 작업기간은 4~5개월 정도이다. 4월에 하코다테를 출항한 게잡이 공선은 오호츠크해가 얼어붙는 9월이 되어야 하코다테에 돌아온다. 그동안 그들은 육지를 밟지 못하고 배 안에서 자유가 없는 생활을 해야 한다. 3~4일간의 항해와 4~5개월의 항해에 대한 어업노동자들의 마음가짐은 전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은 신분과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어업노동자들은 특별히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면 해고를 당하지 않는 신분이었다. 오구라와 갑판장이 해고를 당한 것은 그들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안정된 신분이었다. 그리고 만주마루의 항해는 사나흘의 짧은 항로였다.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업노동자들의 피로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의 신분은 비정규직의 계절노동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육지를 밟지 못하고 배 안에서 있어야 했다. 어업노동자들의 심적인 피로가 극심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들은 단기간에 많은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 잔학한 노동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은 캄차카에 동이 트는 새벽 두시부터 어구를 준비하고, 하루 평균 14시간의 노동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두 작품에서 어업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차이, 그리고 항해 기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두 작품에서 어업노동자들의 심적,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감독의 학대를 받는다.

셋째,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경찰이 나오지만, 「게잡이 공선」에서는 제국군대가 나온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파업이 일어났을 때, 선장은 경찰에게 연락하고 경찰이 와서 파업 주동자를 잡아간다. 만주마루가 요코하마에 도착했을 때, 해양경찰서에서 경찰이 와서 파업주동자인 후지와라와 하다를 잡아간다.

그런데 「게잡이 공선」에서는 경찰이 나오지 않고 제국군대가 나온다. 「게잡이 공선」에서는 제국군대의 구축함이 와서 파업 주동자를 잡아간다. 무엇보다 제국군대는 어업노동자들이 평소 자기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어업노동자들의 충격은 컸던 것이다. 요컨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을 그리지만, 「게잡이 공선」에서는 제국군대를 등장시켜 러시아와의 국제관계까지 묘사한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천황제 절대주의 권력에 대하여 언급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보다 「게잡이 공선」의 규모와 범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하급 선원의 파업은 개인(個人)이 몰래 시도하지만, 「게잡이 공선」의 파업은 어업노동자들의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거쳐 결정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단지 하급 선원 네 명이 선장에게 요구서를 제시하며 봉기한다.[10]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파업은

10) 요구서의 요구조건은 노동시간 제정, 임금 증액, 공휴일 출항과 입항 시에는 다음날 휴업, 부상 및 질병 수당의 규정과 시행, 심야 거룻배 운항 금지 등이었다.

창고지기인 후지와라, 변소청소부인 하다, 조타수인 오구라, 그리고 니시자와 이렇게 네 명이 어업노동자들 몰래 시도한다. 파업의 주동자인 후지와라는 하급 선원 내에 밀고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파업실행을 비밀에 부친다. 그들은 비밀유지를 위하여 하급 선원들과 보일러공들에게 파업하는 날까지 파업 결행을 알리지 않는다. 그들은 넷이나 다섯 명으로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파업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파업실행을 알고 있는 자는 네 명뿐이었다. 단지 파업 당일에 가서야 하급 선원들과 보일러공들에게 파업지지를 요청할 뿐이다. 이 작품에서는 중대한 파업결정을 어업노동자 모두가 함께 하지 않는다. 파업에 대하여 치열한 의견 교환이 없다. 개인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파업의 힘이 나올 수가 없고, 파업의 결속력이 없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에서는 어업노동자 모두의 공개적인 토론으로 파업을 결정한다.

이 작품에서 어업노동자들은 폭풍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다. 그리고 어업노동자들은 공개적인 집회를 열어 파업찬반을 토론하고 이러한 토론을 거쳐 파업을 일으킨다. 그리고 어업노동자들 거의 전부가 파업에 참가한다. 그들은 학생, 하급선원, 보일러공, 그리고 잡부 가운데 아홉 명을 파업 대표자로 뽑아 선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개인이 파업을 시도하지만, 「게잡이 공선」의 파업은 어업노동자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참가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밀고자 때문에 비밀리에 파업을 준비한다. 밀고자가 있으면 파업을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에서는 밀고자가 있어도 공개적으로 집회를 열어 파업을 실행한다. 요컨대 이것은 두 작품의 파업에 대한 노동자들 인식의 차이이고, 노동자들 수준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파업에 참가한 네 명과 「게잡이 공선」에서 파업에 참가하는 어업노동자를 비교하면, 두 작품에서의 파업의 차이를 알 수 있다. 파업의 의미가 다른 것이다. 네 명이 주도하는 파업과 어업노동자 전체가 참가하는 파업은 그 의미가 전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파급효과도 큰 차이가 있다.

다섯 째,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의 파업은 파업과정(過程)이 없지만, 「게잡이 공선」에서의 파업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진전하는 파업과정을 거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파업은 작업 중 조타기 체인과 덮개 사이에 몸이 끼는 부상을 당한 견습 선원인 야스이의 병원비를 선장이 인정해주지 않은 것을 계기로 일어난다. 이 작품에서 하급 선원의 파업은 후지와라 등 네 명이 몰래 시도한 것이기에 파업에 이르는 과정이 없다.[11] 단지 파업 당일 하급 선원들과 보일러공들에게 파업실행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뿐이다. 후지와라가 선장과 교섭하고 있을 때, 선실 밖에 하급선원들과 보일러공들이 응원을 오지만, 파업에 이르는 과정이 없기에 그들의 응원은 공허하다.

파업이 자신들의 일이 되려면 파업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해야 한다. 그들은 파업 과정에 참가하지 못했기에 파업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파업을 일으킨 네 명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작품의 어업노동자들은 모두가 함께 하는 파업과정이 없었기에 그들의 파업은 힘을 모을 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파업을 어업노동자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 했기에 파업이 어업노동자들과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개인적이고 파업과정이 없는 파업이었지만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선장은 일단 그들의 요구조건을 들어 준다. 하지

11) 후지와라가 보일러 하역을 거부하는 행동이 있지만 어업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만 이것은 선장의 계책에 다름 아니었다. 선장은 요구조건을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어업노동자들을 안심시키고, 요코하마까지 무사히 항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찰에 연락하였던 것이다.

후지와라도 선장이 파업 노동자들을 경찰에 연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지 생각뿐이었다. 그 후의 대책이 없었다. 어업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파업의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혼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만일 이 작품에서 어업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파업과정이 있었다면, 선장이 그렇게 쉽게 경찰에게 연락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자신의 책임이 남기 때문이다. 어업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파업이 아니었기에 주동자 네 명을 처리하자, 파업은 간단히 끝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에서의 파업은 다르다.

「게잡이 공선」에서 파업은 한 단계 한 단계 파업에 이르는 과정을 거친다. 우선 이 작품에서 잔혹한 노동과 학대를 당하고 있는 어업노동자들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어 작업을 느리게 하는 태업을 실행한다. 태업은 어업노동자들의 몸을 어느 정도 편하게 해 주었다. 각기병 어업노동자가 죽은 뒤에는 태업을 하루 걸러서 계속한다. 어업노동자들은 이러한 태업을 통해 감독에게 저항하는 방법을 배운다. 하지만 태업은 단지 작업을 느리게 할 뿐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업노동자들은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단계로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은 전체 집회를 열어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 토론한다. 그들은 치열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교환한다. 그리고 그 의견을 다수결로 추인한다. 그 후 각각의 직종을 대표하여 아홉 명의 대표자를 선발한다.

이 작품에서 어업노동자들은 몇 명을 제외하고 모두 파업과정에 참가한다. 파업은 어업노동자들 모두의 하나 된 의견이었다. 「바다

에 사는 사람들」에서의 파업이 네 명의 의견이었다면, 「게잡이 공선」에서의 파업 결정은 배에 있는 노동자 모두의 의견이었던 것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의 파업보다 「게잡이 공선」에서의 파업이 파괴력이 큰 이유다. 이것은 두 작품에서 파업과정의 차이라고 생각된다.

여섯 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파업은 실패로 끝나지만, 「게잡이 공선」의 파업은 성공한다.

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파업은 실패로 끝나지만, 「게잡이 공선」의 파업은 성공하는 곳에 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파업은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해 일등항해사가 해양경찰서에서 경찰을 데리고 오자 간단히 끝난다. 그들은 단지 '당했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저항도 없이 잡혀간다. 후지와라와 하다는 경찰서에 가서 형벌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오구라와 갑판장은 해고를 당한다. 이 작품에서 파업은 실패로 끝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은 다르다.

「게잡이 공선」의 파업은 처음에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작품의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어업노동자들은 파업이 참혹하게 패하자 비로소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어업노동자들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밖에 편이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 제국군함을 보면 만세를 부르던 어업노동자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제국 군함이라고 큰 소리 친다고 해도 재벌의 앞잡이야. 국민 편? 이상해, 똥이나 처먹어라야!"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어부들이라도 이번에야말로, '누가 적'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현실을 깨달은 어업노동자들은 천황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매년의 예로 어기(漁期)가 끝날 무렵이 되면 게 통조림 '헌상품(獻上品)'을 만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난폭하게도' 언제나 별로 목욕재계를 하고 만드는 것도 아니었다. 그때마다 어부들은 감독을 지독한 일을 하는 자라고 생각해왔다. -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져 있었다.

"우리들의 진짜 피와 땀을 짜서 만든 것이야. 흥, 분명 맛있겠지. 먹고 나서 복통이라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네."

모두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다.

"돌멩이라도 넣어두어! - 상관없어."12)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은 천황, 국가, 제국군대에 대해 품고 있던 이제까지의 환상을 버린다. 그들의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밖에 편이 없다."라는 의식은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깊은 곳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 번 일어선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게잡이 공선」의 의의는 어업노동자들의 이 '다시 한 번 일어서는'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떠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는 태도, 이 불굴(不屈)의 정신이야말로 노동자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파업에서 하급선원들과 보일러공 등 어업노동자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전과 같다. 파업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은 변한다. 그들은 이제까지 모르고 있던 자신들의 힘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 파업은 어업노동자들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들은 파업에서 이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노동현장으로 들어간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본가를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 하급선원들의 파업이 실패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

12) 「게잡이 공선」『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2권』 신일본출판사, 1993, p. 361.

우선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어업노동자들의 노동의식이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의 의식보다 낮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시대가 「게잡이 공선」시대보다 빠르기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개인 몇 명이 몰래 파업을 시도한 점, 파업과정이 없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네다섯 명으로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이길 수 있다는 단순한 인식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코하마에 가서 파업을 해결하려는 선장의 계략에 간단히 속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어업노동자들의 파업은 파업에 이르는 과정을 밟지 않았기에 강한 힘에 부딪치면 한 순간에 사라질 것이었다. 이 작품에서 파업은 어업노동자 집단의 힘이 아니라, 개인인 네 명의 힘이 전부였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의 파업 실패는 어쩌면 예정된 일이었다. 어업노동자 전체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하는 파업 과정이 없기에, 선장이 경찰을 부르자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무너지는 것이다.

한편 「게잡이 공선」에서 어업노동자들의 첫 번째 파업은 실패한다. 그것은 어업노동자들 전부가 아니고 아홉 명의 대표자가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아홉 명의 대표자가 구축함에 잡혀간 후, 어업노동자들은 자신들 모두가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어업노동자들은, "잘못했어. 저렇게 아홉 명이면 아홉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우는 게 아니었어. 마치 우리들의 급소는 여기다 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 모두는, 모두가 하나다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야. 그랬다면 감독이라도 구축함에 무전은 칠 수 없었을 거야. 설마 우리들 전부를 인계해 버린다는 것은 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라고, 깨닫는다.

무엇보다 어업노동자들은 그들의 적들을 정확히 인식하게 된다. 어업노동자들은 제국 군함과 천황과 재벌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

결되어 있는지를 몸으로 알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씩 파업과정을 밟아나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업노동자들은 태업으로 감독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고, 첫 번째 파업에서 제국군대의 구축함이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만일 이러한 파업과정이 없었다면 어업노동자들이 두 번째 파업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어업노동자들은 파업과정을 거치면서 온몸으로 파업을 받아들이고 있었기에 첫 번째 파업이 실패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업이 실패했어도 굴하지 않고 다시 한 번 파업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는 어업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이 있기에 파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 「게잡이 공선」의 어업노동자들이 승리한 이유의 하나로, 이 작품의 어업노동자들에게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어업노동자들에게 없는 절실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는 죽음이 없지만, 「게잡이 공선」에는 죽음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각기병으로 고생하던 어업노동자가 죽는다. 어업노동자들은 과로에 지친 몸이었지만 밤을 새워 그를 추모한다. 그의 시신은 삼베자루에 넣어져 바다에 던져진다. 어업노동자들은 마치 자신의 몸이 시커먼 캄차카 바다바닥에 그렇게 떨어지기라도 한 듯이 무서워한다. 이 작품에서 어업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파업을 한 이유이다. 이 작품에서 '살해당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오시오!'가 어업노동자들의 선전 문구였다. 그들에게 파업은 생명(生命)이 걸린 문제였던 것이다.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1926년에,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은 1929년에 발표된 작품이다. 발표가 겨우 3년 차이이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이, 두 작품의 간격은 크다. 3년 사이에 일본 노동운동의 급격한 발전 모양을 볼 수 있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발표된 1926년부터 「게잡이 공선」이

발표된 1929년 사이의 3년간에 발생한 주요한 사건으로서는 코민테른의 '27년 테제', 일본 최초의 보통선거, 그리고 3·15사건을 들 수 있다. 일본 공산당은 1927년 코민테른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일본에 관한 테제'(27년 테제)를 채택한다. 27년 테제는, 일본의 권력은 부르주아의 손에 있고, 당면한 일본 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직접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성장한다고 규정하고, 제국주의 전쟁의 방지, 중국 혁명에서 손을 뗄 것, 소비에트의 수호, 식민지의 완전한 독립, 군주제의 폐지, 18세 이상의 남녀 보통선거권, 기생적 토지 소유의 폐지 등 부르주아 민주혁명의 요구를 내걸었다.[13] 테제는 야마카와(山川)의 해당 이론, 후쿠모토(福本)주의의 오류를 철저하게 비판했다.

한편 1928년 2월, 일본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그 결과 무산정당은 8명의 당선자를 내었다. 이 선거에서 노농당(勞農黨) 후보로 나선 야마모토 겐조(山本懸藏)의 활약상을 고바야시 다키지는 「총선거와 우리들의 야마모토 겐조」라는 르포로 쓰고 있다. 이러한 총선 결과에 놀란 정부는 그 해 3월 15일 전국에 걸쳐 일본 공산당 지지자들을 체포하였다. 소위 3·15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검거된 사람은 천명을 넘었고, 그중 484명이 기소되었다. 다키지는 「1928년 3월 15일」이라는 작품에서, 이 사건으로 구속된 운동가들에게 가해진 테러리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1928년 5월에 나프(전일본무산자예술연맹)가 결성된다.

이렇게 3년 사이에 일본사회는 긴박하게 돌아간 사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두 작품에서 이러한 간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바로 이 시기가 자유민권운동의 다이쇼(大正)에서 군국주의 시대인 쇼와(昭和)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 차이도 있을

13) 이토야 히사오(糸屋壽雄)·이나오카 스스무(稻岡進)저, 윤대원 역 『일본민중운동사』 학민사, 1987, p. 374.

것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작품발표는 1926년이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1917년경부터 1923년에 걸쳐 쓰인 작품이기에 다이쇼 시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하야마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보다 고바야시의 「게잡이 공선」이 진화된 자본주의를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게잡이 공선」에서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작품구성상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그 주제에 대한 진전된 측면을 개척하여 일본문학에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다.

5. 나가며

이상, 본고에서는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을 비교 연구해 보았다.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과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잡이 공선」은 어업노동자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 소설이다. 그리고 「게잡이 공선」은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두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작품은 배에 대한 실권의 문제, 난파선에 대한 대응, 어업노동자의 신분과 노동기간, 경찰과 제국군대의 차이, 개인 파업과 집단 파업, 파업과정의 유무, 그리고 파업의 성패 등 많은 차이점을 보인다. 무엇보다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파업이 실패하지만, 「게잡이 공선」의 파업은 성공한다. 또 「바다에 사는 사람들」에서는 파업에 이르는 과정이 없고, 「게잡이 공선」은 파업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작품에서 파업의 성패를 갈랐다고 볼 수 있다.

두 작품의 발표는 각각 1926년과 1929년이다. 이렇게 겨우 3년

차이이지만, 두 작품의 간격은 크다. 3년 사이에 일본 노동운동의 급격한 발전 모양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게잡이 공선」에서 하야마 요시키의 「바다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면서도, 그 위에 자신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갔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小林多喜二「蟹工船」『小林多喜二全集 第二巻』新日本出版社, 2000, pp. 257-364.
葉山嘉樹『海に生くる人々』岩波文庫, 2003, pp. 1-273.
2,
藏原惟人「『海に生くる人々』について)」『藏原惟人 評論集 第三巻』新日本出版社, 1975, p. 279.
中野重治 「『海に生くる人々』の言語」『中野重治 全集 第十八巻』 筑摩書房, 1997, pp. 20-21.
壺井繁治「回想の小林多喜二」『壺井繁治全集 別巻』青磁社, 1989, p. 48.
平野謙「葉山嘉樹」『平野謙作家論集』新潮社, 1971, p. 338.
3,
小林多喜二『小林多喜二全集 第五巻』新日本出版社, 2000.
_____『小林多喜二全集 第七巻』新日本出版社, 2000.
이토야 히사오(糸屋壽雄)・이나오카 스스무(稻岡道)저, 윤대원 역『일본민중운동사』학민사, 1987.

(**투고일**: 2018. 5. 15 **심사완료일**: 2018. 6. 18 **게재확정일**: 2018. 6. 21)

황봉모
소속: 경북대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주소: 서울시 도봉구 창동 주공A 408-1405
전화번호: 010-4280-8827
전자우편: kubojun@hanmail.net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n "People living in the sea" by Hayama Yosiki and "Crab factory ship" by Kobayasi Takiji

HWANG, Bongmo

This article is a comparative study of "people living in the sea" by Hayama Yoshiki and "Crab factory ship" by Takiji Kobayashi.

Kobayashi Takiji's "Crab factory ship" was influenced much by Yoshiki Hayama's "People living in the sea". The two works are a novel having one common point that sea workers work as their main characters. However, the two works differ in many ways. More than anything, strike in "People living in the sea" failed, but strike in "Crab factory ship" succeed. Moreover, there is no process leading to a strike in "the people living in the sea", but there is a process that leads to a strike in "Crab factory ship". And, this divided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strike in both works.

"People living in the sea" was announced in 1926, and the announcement of "Crab factory ship" was in 1929. This is a difference of only three years, but the two works vary widely. During the three years, we can see the rapid development of Japanese labor movement. Takiji Kobayashi opened his own new perspective on Yoshiki Hayama's "People living in the sea" in "Crab factory ship".

Key words: Yosiki Hayama, "People living in the sea", Takiji Kobayashi, "Crab factory ship", strike